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 추석,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예 배 순 서>

|             |                      |           |
|-------------|----------------------|-----------|
| 목도          | .....                | 다함께       |
| 성시          | ..... 시편 100편 1-5절   | 인도자       |
| 찬송          | ..... 304장(통일 404장)  | 다함께       |
| 기도(또는 사도신경) | .....                | 가족 중(다함께) |
| 성경봉독        | ..... 신명기 16장 13-17절 | 인도자       |
| 메시지         | ..... "함께 즐거워하라"     | 인도자       |
| 찬송          | ..... 301장(통일 460장)  | 다함께       |
| 주기도         | .....                | 다함께       |

인도 : 가족 중 어른

## "함께 즐거워하라"

### 신명기 16장 13-17절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다. 최근 사회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삭막해져 가면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 1.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15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추석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한 해의 소출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온전히 즐거워'하는 추석이 될 것이다.

#### 2.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하라고 하였다(14절).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족들 중에 외롭게 있는 이들과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 3.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켰다(13절). 그 이레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였을 뿐만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였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의 기회로 삼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 한교단 다체제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98회총회에서 전격통과 -WCC총회 북한인권법 상정토록-

우리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한국장로교 한교단 다체제 헌법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8회 총회(9.9-12)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250개 교단으로 분열된 한국장로교회를 하나로 묶는 이 작업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역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신학적 전거를 제시한 이종윤 원로목사(한교단 다체제 특별위원장)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찢어진 교회를 봉합시켜 주시고 하나의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평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빼놓은 프로그램에 북한 인권문제를 토론하고 최종 성명서에 반드시 세계 기독교인들의 염원이 담긴 박해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안건을 WCC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도 총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이종윤 원로목사는 인권을 신권(神權)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앙 자유를 북한 주민이 회복 할 때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추석 되도록 어려운 성도와 장애인 관련기관에 구제금 전달

추석연휴가 금주에 시작된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만물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심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추석연휴가 되도록 하자.

한편 우리교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 이번 사랑의 구제는 2013 사랑의 바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다.

땀 흘려 수고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석 구제는 보람된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 감사할 뿐이다.

## 카자흐스탄 소녀 돕기 자선 음악회 9월 28일(토) 오후 5시 30분 / 베델 하우스

2013 서울교회 비전트립팀은 카자흐스탄에서 7살 된 한 아이를 소개 받았다. 부모님의 기쁨이자 자라있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소녀, 살리닷. 하지만 살리닷의 손에서 벤젠이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갑작스런 사고로 온 몸이 오그라들고 뼈마디 마디와 피부는 수축되었다. 지금 살리닷에게는 지독한 화상의 흔적과 상처받은 마음만 남았다. 순간의 사고로 가혹한 현실에 갇힌 살리닷을 구하여 살리닷이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살리닷 수술기금 마련 자선음악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 일시: 2013년 9월 28일(토) 오후 5시 30분~8시
- 장소: 베델하우스(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604-3)
- 주관: 서울교회 의료선교팀,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 청년부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2)

(문 101) 삼하24:9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21:5에 의하면 백10만 명으로 30만 명이 적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하24장은 유다 사람을 50만 명으로 그러나 역대상21장에서는 47만 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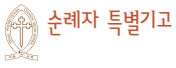
(답) 역대상은 전시이든 평시이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인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하24장은 전시에 출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자(is hayil)만 셈한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실제 전투에 투입될 수 없는 보충병 역할을 하는 이가 30만 명이나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전투에 가담할 '담대한 자'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경우도 사무엘하에서는 대상21장 보다 3만 명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21:6에 의하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하24:3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중단할 것을 간청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하24장의 경우엔 요단 건너편에서 시작하여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 베냐민 사람이 포함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역대상보다 3만 명이 더 많이 보고된 것입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사후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베냐민 지파는 남 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을 유다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습니다. 요압이 대상21:5에서 즉 그가 다윗에게 한 첫 번째 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후에 한 보고 즉 삼하에서는 포함시켜 남북을 합쳐 160만 명이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인구가 있음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물은 127만 명으로 이들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로 기록된 것이므로 이 두 기사는 상호 충돌관계보다는 보충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꿈나무 영어성품스쿨 개강



**여러분의 섬김이...**  
제 44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나눔의 집에 목회자님들의 발걸음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양복, 구두, 소형 가전 등을 나눔의 집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누구에게든 가큰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 기독교인과 제사(祭祀)

조상 제사의 기원은 조상 숭배다. 이는 조상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기복(祈福)사상과 연결된다. 유교에서는 제사의식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고 뿌리 의식을 갖게 된다. 조상 제사의 근본은 두 가지다. 첫째, 효사상이다. 효는 모든 덕의 시작이며 근본이다. 조선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효를 강조하고 장려하고 보급했다. 둘째, 뿌리의식이다. 그리고 집안의 결속을 다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조상 제사는 효를 가르치고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유교의 효(孝)사상은 기독교 효사상(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과 같으므로 유교인들은 쉽사리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조상에게 경의를 표할 때에 기독교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조상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므로 우상숭배가 된다. 조상 제사



**김영한 목사**  
(숭실대학교 교수  
서울교회 협동목사)

는 기독교 추모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상 제사는 조상 신위(神位)에게 절하는 예식이나, 기독교 추모식은 조상의 영정(影幀)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예식이다. 조상 존경과 감사가 이방신에게 절하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독교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더 좋은 방식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 추모(追慕)식이다. 보통 추도식이라고 해왔는데 도(悼)자가 슬퍼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으로 추모식이라 하는 것이 좋다.

“  
조상 존경과 감사가  
이방신에게 절하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성도 가운데는 친척 어른들이 믿지 않거나 혹은 불신 가문에 시집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우상숭배라고 참석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오해받고 전도 기회를 놓치고 시집살이가 어렵게 된다. 그런 경우는 제수(祭需) 비용부담도 잘하고 참석은 잘하되, 절하는 대신 기도하는 방식을 허락받는 것이 좋다. 필자의 제자 중 한 분이 불신가정에 며느리가 되어 성실히 제사에 협력하되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고 수년 지나면서 차츰 시집 어른들을 전도하여 모두 예수를 믿도록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본인이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가 발라 어른들을 공경하여 칭찬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



**2013**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바자



# 통일 후의 나의 꿈



양린인 성도  
(디아스포라부)

저는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 어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 교회 디아스포라부 탈북 대학생 양리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13년을 살았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그 곳에서 2년 반을 살다가 한번의 복송을 당하고, 2003년 말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입국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학교도 못가고 숨어 지내야만 했으며, 2003년 초에는 한국으로 오려 하다가 복송 당하여 6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다른 대학생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학업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부딪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앞으로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로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작년 Special WEST Program을 신청하게 되었고, 정부의 장

학금을 받으며 워싱턴D.C에서 4개월의 어학연수와 4개월의 인턴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미국 서부와 캐나다, 뉴욕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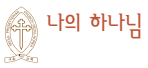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배움을 북한 땅과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외무영사관이 되어 외교적인 실무를 배워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회를 국제적으로 잘 융합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시온찬양대 (대장: 이영기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최유현 집사의 지휘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나의 기쁨”, “Ev'ry Time I Feel the Spirit [성령을 느낄 때 마다]”의 세 곡을 오르가니스트 김진형 성도, 피아니스트 박승기 성도 그리고 팀 피아니스트 윤주일 집사의 협연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 동 정

- 특담 : 6교구 감성수 성도, 노혜진 성도 가정 (김재성 집사, 유순섭 권사 차남)
- 주간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9.15) 베드로 선교회(9.22)
- 금주의 식사 : 양득춘 집사 최혜인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다락방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최치순 집사  
(4-1다락방장)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4교구 1다락방 및 10다락방에 속한 6가정 식구들은 지난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안면도 예들수 양관에서 「약한 지체 세움과 친교」의 목적으로 4교구 지도교역자인 정수길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이”(속 9: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다락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보다 더 존귀하며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로 이동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세워주고, 별빛이 쏟아지는 해변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사연들을 이야기하며 더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별 빛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락방 식구들의 고민과 기도제목들을 더욱 뜨겁게 녹여 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산과 들과 바다에서 함께 지내시며 제자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이번 다락방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분부의 말씀이 다락방 부흥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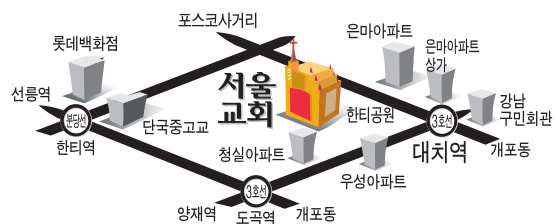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도록
2. 한교단 다체제와 북한인권 문제가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리더십과 함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음의 열매 풍성하게 하시고 결실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br>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br>(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웨스트민스터 홀             |
| 수 요 예 배   | 젊은이 예배               | 오후 1시 30분     | 본 당<br>II, III 층     |
|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새 벽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본 당 II 층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본 당 II 층      |                      |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